연구용역보고서

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2023. 10.

대 덕 구 의 회

제 출 문

“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431, 912호
상 호 : 한국재정학회
대 표 : 이 철 인
책임 연구위원 :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 소개

○ 등록현황

- 명칭: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
- 구성 : 2023. 4. 17
- 회원현황 : 4명 /(회장) 김기홍 의원, (회원) 박효서.이준규.조대웅 의원

○ 과 업 명

-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과업 내용

1. 기부금액 활용 방안
   - 적립된 기금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2. 기부금액 증액 방안
   - 신규사업발굴을 통한 기부 유도(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덕구형 답례품 발굴(체험형 상품권 등)
3. 홍보 방안
   - 연령대별 홍보 방법 모색과 다양한 홍보 채널 발굴

○ 소요 예산 : 의원정책개발비 2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 업체 : 한국재정학회 신승근 교수 외 1명

연구회원 소개

김기흥 의원

<경력 사항>

-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장
-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소상공인위원장

박효서 의원

<경력 사항>

-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원
- 대덕구의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이준규 의원

<경력 사항>

-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원
-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前 국민의 힘 대덕구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조대웅 의원

<경력 사항>

-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원
-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 대덕구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활동 내용

○ (‘23. 4. 17) ‘고향사랑 연구회’를 구성

- 회원현황 : 4명(회장 김기홍 의원, 박효서.이준규.조대웅 의원)

○ (‘23. 5. 23) ’연구활동 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23. 5. 25) ’의원 연구회 등록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에 대한 심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23. 6. 7)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예산 2천만 원(VAT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재정학회 신승근 교수 외 1명

○ (‘23. 6. 21)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대덕구청 대회의실

○ (‘23. 7. 11) 1차 간담회 개최 / 대덕구의회 자료실

○ (‘23. 8. 28)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대덕구청 대회의실

※ 현장답사 : 3개소 방문(로하스 캠핑장, 이현동 호박마을, 송촌체육공원)

○ (‘23. 9. 7) 2차 간담회 개최 / 대덕구의회 자료실

○ (‘23. 9. 25)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대덕구청 대회의실

활동 사진

(착수 보고)

(제1차 간담회)

- 2023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 -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023. 8. 28.(월) 13:30 / 대덕구청 대회의실
대덕구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중간 보고)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현장답사
2023. 8. 28.(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현장 답사)

(제2차 간담회)

- 2023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 -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023. 9. 25.(월) 14:30 / 대덕구청 대회의실
대덕구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최종 보고)

연구 요약

○ 대덕구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답례품 개발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기금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그리고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의 협력이 필요함

- 대덕구형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발굴을 위해서는 대덕구의 지역 환경과 경제 및 사회적인 여건의 분석, 대덕구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일본 고향납세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례 분석, 대덕구의 특색을 반영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발굴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사업과 연계한 홍보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동북쪽의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있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에 위치한 지역임

- 대덕구의 북과 동은 충청북도와 경계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중구, 서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경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의 전 지역이 바라보이는 계족산과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환경뿐만 아니라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대전 경제의 거점지로,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임
- 또한 예로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여 수많은 선비와 충신·열사·효녀·효부를 배출하였고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한밭 정신문화의 발상지임

- 대덕구 전체면적은 68.68㎢ 로, 지역별로는 신탄진동이 22.99㎢ 로 가장 넓고, 법1동이 0.71㎢ 로 가장 작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27.6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23년 6월 말 현재 인구는 170,869명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1,445,126명의 1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송촌동이 26,373명으로 가장 많고 목상동이 6,213명으로 가장 적음
- 1989년 대전직할시 편입 이후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 중리·송촌지구 택지개발, 법동지역 및 송촌동 선비마을, 석봉동 엑슬루타워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로 2000년도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둔산 및 도안 신도시 개발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
- 2011년~2018년 인구감소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행정안전부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분류됨. 0세~19세 비율은 7년 간 6.7% 감소하고 이에 대해 고령화비율은 16.6%(대전광역시 평균에 비해 2.6% 높음)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대덕구 산업체 및 근로자 수 등은 다음과 같음. 관내 총 사업체 수는 25,405개로 오정동 4,710개(18.54%), 중리동 3,076개(12.11%), 대화동 3,037개(11.95%) 순임. 대덕구 관내 총 종사자 수는 101,980명으로 목상동 21,389명(20.97%), 오정동 14,884명(14.60%), 대화동 13,029명(12.78%) 순이며. 도매·소매업 27.26%, 운수업 16.42%, 제조업 14.14% 순이고, 상용근로자 67.17%, 자영업자 20.47%, 임시·일용 근로자 8.44% 순임

○ 일본 고향납세 사업 중 특히 도시형과 도농복합형 사례인 스미다구의 모던스미다사업, 진세키코겐정의 동물보호사업 그리고 가네야마정의 관계인구 증가사업 등을 대덕구와 연계할 수 있는 사례로 분석함

- 스미다구는 도쿄의 명소인 스미다강을 중심으로 ‘스미다의 꿈 응원사업’을 실시하여 기부자의 응원을 받고 있음. 스미다구는 구민의 자랑인 예술가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를 기리는 동시에 거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을 개관하는 동시에 스미다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상품과 음식 메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스미다 모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200건의 스미다 지역브랜드를 인증해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연계 활용하고 있음
- 히로시마현 진세키코겐정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동물보호사업인 애완동물 살처분금지 프로젝트를 고향납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고향납세 기부금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진세키코겐정의 인지도를 높임. 진세키코겐정의 동물보호사업 성공을 참고하여 전국적으로 유기견 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쵸는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고향납세 사업으로 관계인구 증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가네야마쵸는 인구 5,139명(2021년), 면적 161.67㎢의 작은 마을로, 면적의 약 4분의 3이 산림으로 뒤덮혀 있음. 「일본 오지기행」에도 소개되어 있을 정도로 마을은 낭만적인 지역이지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한 적극적인 지역으로 현재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리 풍경만들기 100년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가네야마쵸는 고향납세 사업으로 관계인구의 증가를 위한 ‘가네야마의 시간 디자인스쿨 개교’를 열어 마을주민과 외부인과의 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있음

❍ 대덕구에 특화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

-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의 핵심은 대덕구에 관심을 갖게 하고, 대덕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인 응원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임. 응원세력은 고향사랑 기부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 기부하는 출발점인 눈덩이 만드는 사업(언덕 위에서 눈뭉치를 굴리면 커다란 눈덩이가 됨)이 중요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1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 :
  바둑은 수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로서 여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바둑은 유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 고령자의 여가생활 수단으로서 질환 예방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AI와 결합하여 신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구의 명소인 대청호 부근에 전국 유일의 다목적 '바둑 전용 경기장'을 마련하여 전국 바둑 애호가가 방문하고 싶은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2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 :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구' 이미지가 필요함. '대덕아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육아문제에 관심을 가진 부모에게 대덕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함. 특히,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무장애 놀이터', '땀범벅 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검토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3 [친환경 모델 도시 만들기] :
  대덕구를 친환경 모델 도시로 알리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선언', '탈탄소 선언' 등 자연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조례의

내용 강화로 환경 도시로서 대덕구를 정비함. 구체적으로 핸드타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의 체결, 원료 사용 저감과 재활용성 증대를 통한 탄소저감 노력 등 친환경적인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대덕구 관공서 및 공공기관, 대덕구 입주 기업 전반으로 확산함.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고향사랑 사업으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4 [반려동물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
  대덕구는 2019년 대전광역시 최초로 신탄진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소함. 추가적으로 ‘유기견 돌보기 사업 ' 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애완견 애호가에게 대덕구에 기부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킴. “의미있고, 보람있는 " 기부를 통해 유기견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말에는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유기견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5 [드론과 함께 하는 체류관광] :
  대덕구는 드론 애호가가 방문하여 드론 비행하고 싶은 산과 물이 조화스러운 대청호 관광벨트를 가지고 있음. 또한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음. 드론사업과 고향사랑 체류형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대덕구’ 에 관심을 가지게 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6 [대덕구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 :
  대덕구 덕구와 더기더기를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연계함. 덕구와 더기더기에 관한 다양한 대덕구 스토리를 만들어 대덕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 대덕구 덕구와 더기더기를 웹툰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젊은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함

- 고향사랑 기금사업 제안 7 [지역사업체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활용하여 대덕구 컨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사업체와 상생하는 수익 모델을 개발함. 단지 대덕구 기업뿐 아니라 인접한 청주시, 보은군 그리고 인근의 공주시, 논산시, 옥천군 등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서론 ····· 1

Ⅰ. 과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2

제2장 대덕구 주요 현황 ····· 4

Ⅰ. 지역 환경 ····· 4

Ⅱ. 인구 현황 ····· 5

Ⅲ. 사업체 현황 ····· 6

제3장 국내 기금사례 ····· 7

Ⅰ. 활용 가능한 기금사례(안) ····· 7

Ⅱ.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 8

Ⅲ.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슴공원 조성 ····· 9

Ⅳ.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 11

Ⅴ. 시흥시・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 12

Ⅵ.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 14

제4장 일본 고향납세 사례 ····· 16

Ⅰ. 고향납세 기금사업 사례 ····· 16

Ⅱ. 스미다구 모던스미다사업 ····· 17

Ⅲ. 분쿄구 생활보호자녀 후원사업 ····· 22

Ⅳ. 가메오카시 지구친환경사업 ····· 25

Ⅴ.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 ····· 28
Ⅵ.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 ····· 31

제5장 대덕구 맞춤형 고향사랑 기부사업 방안 ····· 35
Ⅰ.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 ····· 35
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 ····· 43
Ⅲ. 친환경 모델도시 만들기 ····· 55
Ⅳ. 반려동물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 58
Ⅴ. 드론과 함께 하는 체류관광 ····· 61
Ⅵ. 대덕구 캐릭터 활용사업 ····· 65
Ⅵ. 지역사업체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 ····· 68

제6장 대덕형 답례품 개발과 맞춤형 홍보방안 ····· 72
Ⅰ. 대덕형 답례품 개발 ····· 72
Ⅱ. 기부자 맞춤형 홍보방안 ····· 79

제7장 결론 ····· 83

<표> 목 차

<표 4-1> 고향납세 사용 용도 12항목 ····· 17
<표 4-2> 스미다구 일반 현황 ····· 19
<표 4-3> 분쿄구 일반 현황 ····· 22
<표 4-4> 가메오카시 일반 현황 ····· 26
<표 4-5> 진세키코겐정 일반 현황 ····· 29
<표 4-6> 가네야마정 일반 현황 ····· 32
<표 5-1> 바둑 인력 현황 ····· 39
<표 5-2> 아마단자 현황 ····· 40
<표 5-3> 아마급자 현황 ····· 40
<표 5-4> 바둑문화산업 분류체계 ····· 41
<표 6-1> 한국갤럽 20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도 ····· 81

[그림] 목 차

[그림 2-1] 대덕구 관내도 ····· 5
[그림 3-1] 남해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이미지 ····· 9
[그림 3-2] 청주 사슴공원 조성 이미지 ····· 10
[그림 3-3] 부산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이미지 ····· 12
[그림 3-4] 시흥·안산 이중 언어 교육센터 프로젝트 이미지 ····· 13
[그림 3-5] 무안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이미지 ····· 15
[그림 4-1] 스미다구 모던스미다 사업 이미지 ····· 21
[그림 4-2]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사업 이미지 ····· 25

[그림 4-3]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이미지 ····· 28
[그림 4-4]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 이미지 ····· 31
[그림 4-5]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 이미지 ····· 34
[그림 5-1] 바둑관광 프로젝트 이미지 ····· 36
[그림 5-2] (사) 대한바둑협회(조직도) ····· 38
[그림 5-3] 어린이 무장애 놀이터 이미지 ····· 44
[그림 5-4]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이미지 ····· 44
[그림 5-5] 경계선 아동 지능개선 프로젝트 이미지 ····· 46
[그림 5-6] 해피클린 캠페인 이미지 ····· 56
[그림 5-7] 스마트팜 이미지 ····· 57
[그림 5-8] 반려견 댕댕이와 함께 프로젝트 이미지 ····· 59
[그림 5-9] 드론으로 촬영한 대청호 이미지 ····· 63
[그림 5-10] 레크레이션용 드론 예시 ····· 64
[그림 5-11] 대덕구 캐릭터 덕구와 더기더기 ····· 65
[그림 5-12] 대청댐 물문화관 이미지 ····· 69
[그림 5-13] 대청댐 물문화관 주변 인프라 이미지 ····· 70
[그림 5-14] 부여 금강문화관 이미지 ····· 71
[그림 6-1] 대덕구 THE맑은이현마을 호박찐빵 이미지 ····· 74
[그림 6-2] 대덕구 더맑은이현마을협동조합 '호박강정세트' ····· 75
[그림 6-3] 더맑은이현마을 생태관광과 공방 추억 이미지 ····· 76
[그림 6-4] GAP 인증받은 대청호 복숭아 ····· 77
[그림 6-5] 30년 역사와 전통의 대덕구 광야식품 음료 ····· 79
[그림 6-6] 연령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조사 ····· 80
[그림 6-7] 2022년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향 조사 ····· 82

제1장 서론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및 수행 기간

○ 과업명: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수행 기간: 2023. 06. 12 ~ 2023. 10. 09

2. 과업 배경

○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 증대 및 정착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수립

3. 과업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대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덕구에 맞춘 고향사랑기부 제도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연구 용역수행을 통해 대덕구에 적합한 기부금액 활용방안 및 증액방안을 모색

Ⅱ. 과업 내용

1. 대덕구 환경 분석 및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전략 수립

○ **(환경·현황분석)**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관련 대덕구 여건 분석 및 현황분석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대덕구의 강점을 살려 활용가능한 자원 분석 등
- 현재 운영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진단 및 문제점 도출

○ **(목표 및 전략 제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와 전략방향 제시

- 대덕구 고향사랑기부제의 비전과 전략, 장・단기적인 목표 도출
- 고향사랑기부제를 선도할 수 있는 맞춤형 특화 전략 제시

2.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및 제도 운영 방안

○ **(기금 활용 방안)** 기금을 활용한 인구소멸 극복,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 올해 적립된 기금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3개 이상 제안
- 향후 지정 기부제를 활용한 기부 유도 방안(기부자에게 다양한 선택지 제공)

○ **(효율적 제도 운영)**

- 답례품 선정・제공 시 관련 서류심사, 현장 평가 항목 등 답례품 선정・제공 절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제시
- 지역 내 자원(민·산·학) 연계·협력 방안
- 기부자 관리 방안 등

3. 대덕구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답례품 개발 제안

○ (특색있는 답례품) 우리 구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답례품 개발

-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대덕형 답례품 발굴(예. 청년기업 및 시니어 사업)
- 대덕구의 특색있는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상품권 개발
- 고액 또는 장기 지속적 기부에 따른 명예스러운 보상 방법

○ **(세대 맞춤형 답례품)** 청장년, MZ세대 등 특정 세대를 겨냥한 힐링·재미·소장 욕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4.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

○ **(대상별 홍보)** 세대별, 집단별 기부에 대한 선호 및 특징에 따른 기부 홍보 및 유인 방안 마련

○ **(지역별 홍보)** 대전광역시 내, 수도권 등 홍보 지역별 차별화된 홍보 방안 제안

5. 기타 연구활동 간에 도출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관련 개선 방향 검토

제2장 대덕구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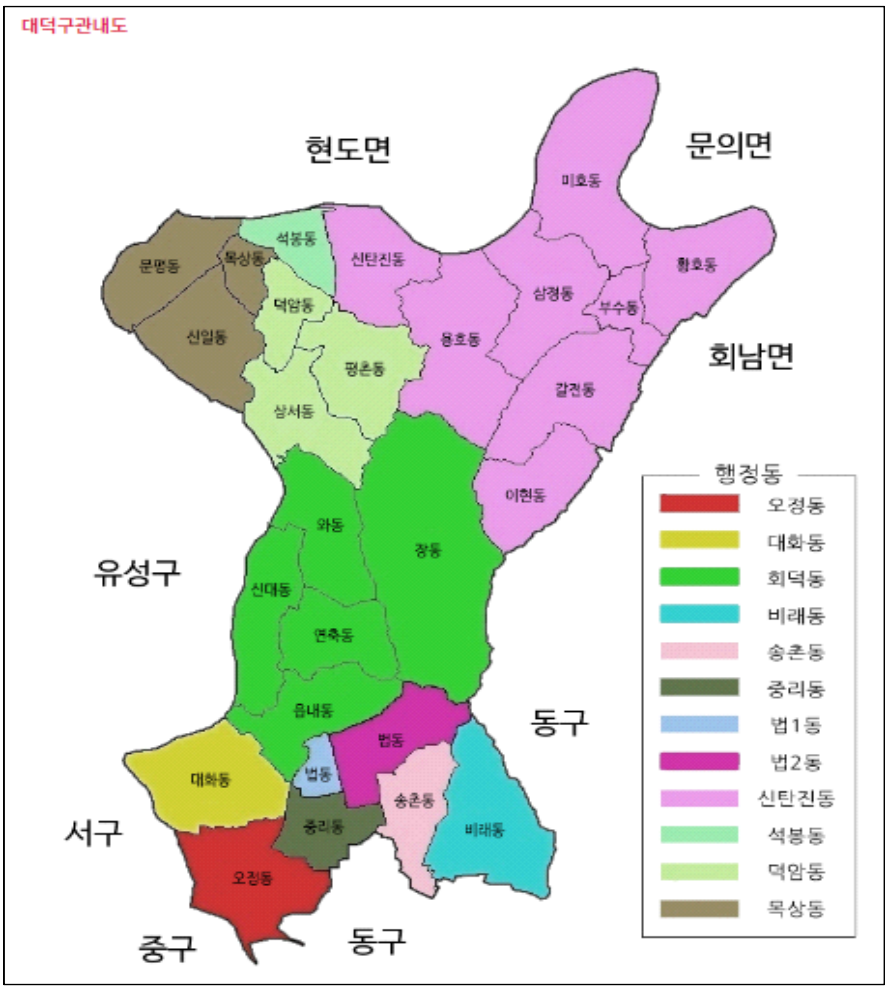
Ⅰ. 지역 환경

○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북과 동은 충청북도와 남은 동구와 중구, 서는 서구·유성구와 경계하고 있으며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호남선 철도가 통과하고 대전의 관문인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있는 영·호남 교통의 분기점

- 대전의 전 지역이 바라보이는 계족산과 대전시민의 젖줄인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대전 경제중흥의 거점지
- 옛 회덕현의 주요부분에 위치하여 있고, 기름진 땅과 빼어난 풍광을 갖춘 풍요롭고 인정이 넘치는 고장이어서, 예로부터 충절과 도덕을 숭상하여 수많은 선비와 충신·열사·효녀·효부를 배출하였고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한 한밭 정신문화의 발상지

○ 대덕구 전체면적은 68.68㎢ 로 시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신탄진동이 22.99㎢ 로 가장 넓고 법1동이 0.71㎢ 로 가장 작으며 지목별로는 임야가 27.6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 대덕구 관내도



Ⅱ. 인구 현황

○ 2023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70,869명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1,445,126명의 11.82%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 인구를 비교하여 보면 송촌동이 26,373명으로 가장 많고 목상동이 6,213명으로 가장 적음

- 1989년 대전직할시 편입된 이후 신탄진 제2지구 구획정리, 중리·송촌지구 택지개발, 법동지역 및 송촌동 선비마을, 석봉동 엑슬루타워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2000년도까지 인구

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둔산 및 도안신도시 개발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대덕구 2011년-2018년 인구감소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 행정안전부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음. 0~19세 비율이 7년간 6.7% 감소하였고, 그 반면에 고령화비율이 16.6%(대전광역시 평균에 비해 2.6% 높음)로,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Ⅲ. 사업체 현황

○ 대덕구 관내 총 사업체 수는 25,405개로 오정동 4,710개(18.54%), 중리동 3,076개(12.11%), 대화동 3,037개(11.95%) 순

- 대덕구 관내 총 종사자 수는 101,980명으로 목상동 21,389명(20.97%), 오정동 14,884명(14.60%), 대화동 13,029명(12.78%) 순
- 도매 · 소매업 27.26%, 운수업 16.42%, 제조업 14.14% 순
- 상용근로자 67.17%, 자영업자 20.47%, 임시 · 일용 근로자 8.44% 순

제3장 국내 기금사례

Ⅰ. 활용가능한 기금사례(안)

○ 고향사랑 기부제는 말 그대로 기부 제도. 기부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주로 기부자가 애정을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응원하거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동기에서 시작함

○ 진천군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 줌. 지난 2021년 8월27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0명은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직후 기적처럼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여 충북 진천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음. 그런데 진천군이 난민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자, 전국 각지에서 진천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짐. '돈쭐내자'(돈+혼쭐내자)는 말까지 유행하며, 'Buy 진천'(진천을 사자) 열풍으로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천몰'(jcmall.net)은 주문 폭주가 이어졌고 결국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남. 진천군이 진천몰 이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특별 할인을 해주거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서가 아니라, 기부자에게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결과였음

- 진천군 사례를 잘 연구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받은 기부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음. 기부자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부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어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될 때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재미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기부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자금 활용 용도를 개발하고 흥미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부자에게 지역 발전의 비전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보여주었을 때 기부자의 격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됨

Ⅱ.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추진

-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 산업을 연계한 소비 증진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총력
- 지역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
- 이를 위해 빅테이터를 통해 남해군을 다녀가거나 향후 남해군을 방문하려는 관광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표적인 핵심 랜드마크를 부각시켜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소득 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
- 체류형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농업, 어업, 축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대로 부각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남해의 특산물인 유자가 향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받고 있고 가공 식품으로 유자술과 유자차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우마지(馬路)촌과 같이 유자와 연계한 유자 축제와 유자 공장 견학 등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지역과 업종을 초월한 다양한 인재 영입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함

[그림 3-1] 남해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이미지

Ⅲ.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슴공원 조성

○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 청주시에 사슴공원을 조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행복한 명소를 조성
- 틀에 짜인 단순한 볼거리에서 벗어나, 사슴과 직접 교감하고 먹이를 주거나 빗질을 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공존하기’를 직접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독특한 만남

-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친환경적 관광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생태 관광' 모범 사례로 사슴공원을 조성하여, 환경을 지키며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전국 제1의 사슴 및 녹용 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 노력
- 사슴공원은 대단위 녹용 생산 단지를 바탕으로 가공, 체험 및 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선도 지구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근 청주공항을 활용하여 동남아, 중국, 일본 등의 관광객도 적극 유치할 계획
- 또한, 1차 산업(사슴 농가), 2차 산업(녹용 제품 제조) 및 3차 산업(체험장 및 관광 테마 파크) 간 융·복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추진

[그림 3-2] 청주 사슴공원 조성 이미지

Ⅳ.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수행 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을 협동조합에 전수
-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기장군 협동조합에 귀속하여, 신규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 품질 개선을 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사업 수행 기간이 끝나면 노하우, 레시피, 브랜드 및 경영전략 등이 협동조합에 남아 지역의 공익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음
- 사업 수행을 통해 창조되는 브랜드와 매장은 소셜 프랜차이즈가 되어 지역에서 계속 창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
-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는 카페, 레스토랑 등 사업 운영 공간을 통한 직접 고용 효과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강사 및 직원 등의 고용도 뒤따르게 됨
- 또한 지역 내에서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효과
- 카페, 레스토랑 등 청년 창업을 위한 소셜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지점을 확대하는 선순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큼

[그림 3-3] 부산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이미지

Ⅴ. 시흥시 · 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프로젝트

- 이중 언어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본인의 모국 언어로 노래를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싶음
- 그러나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다문화 이주 여성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동화되기 위해 또는 우리나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모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이렇게 한국어로만 아이와 소통한 엄마는 아이가 자라서 한국어가 유창해지기 시작하면 아이와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아이는 어머니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생활 방식까지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시흥안산 지역에 가칭 ‘이중 언어 교육센터’를 건립 추진함.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임. 전체 가구원 대비 다문화 가구원 비중이 안산시는 4.3%, 시흥시는 4.2%에 이름
- 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의 양과 질에 비례함.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모국어로 언어를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면 아이의 자존감과 언어 구사에 도움이 됨. 또한 다문화 이주 여성을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외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제2외국어를 배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배우기 힘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2외국어(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등)를 배울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음

[그림 3-4] 시흥·안산 이중 언어 교육센터 프로젝트 이미지

Ⅵ.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 무안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천혜의 생태 자원이자 지역 주민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인 갯벌을 제대로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도록 노력함
- 무안군은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건강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음. 특히 함해만은 반폐쇄적인 만으로 길이는 17㎞, 폭은 약 1.8㎞이며 면적은 344㎢에 달하고 입구는 칠산 바다와 만남. 109.2㎞의 해안선이 원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자연 침식된 황토와 사구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2001년 전국 최초 습지 보호 지역 지정, 2008년 람사르 습지 등록, 2008년 도립 공원으로 지정됨.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생물인 흰발농게, 대추귀고둥을 비롯한 250종 저서 생물, 칠면초, 갯잔디 등 47종 염생 식물, 혹부리오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약 52종의 철새 등 많은 생명체가 무안 갯벌에서 살아가고 있음
- 갯벌은 연안 생태계에 영양 염류를 공급하고, 어류의 산란장이자 보육장으로서, 철새 도래지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그리고 태풍과 해일의 피해를 완화시켜 주는 완충 지대로서 생태적 기능을 함. 또한, 양식장 및 염전 등 수산물의 생산지로서,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서, 지역 주민 경제 활동의 소득원으로서의 역할도 함
- 이러한 갯벌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당 39억 원(2003년 정부 추정)으로, 우리나라 갯벌 총면적을 약 2,500㎢로 적용하여 갯벌 가치를 산정할 경우 연간 약 1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문화재청)

[그림 3-5] 무안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 이미지

제4장 일본 고향납세 사례

Ⅰ. 고향납세 기금사업 사례

○ 대덕구가 기금 활용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일본 우수 사례

- 일본 고향납세제는 제도 도입 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음
- 고향납세제의 도입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실시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
- 지역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인구 감소, 빈집 증가, 고용 축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지역의 매력을 홍보하고, 일자리 및 육아 지원 시책을 발표하며, 정보 통신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민간 고향납세 포털 사이트 중에는 “고향납세 사용 용도로 검색하기”라는 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사용 용도별로 지역의 정책을 정리한 사이트가 있음. 예를 들면 “어린이·육아”, “지역 산업의 진흥”, “환경·위생”, “관광·교류·정주” 등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고, 사용자가 “어린이·육아”를 선택하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沖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1> 고향납세 사용 용도 12항목

교육	건강·의료·복지	아동·육아
환경·위생	지역 산업 진흥	스포츠·문화 지원
마을만들기·시민활동	관광·이주 촉진	안전·방재
재해 지원	단체장 위임	기타

출처) 사토후루

- 이처럼 일본의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방법으로 고향납세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터넷상에 고향납세 사용 용도를 명시하는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찾아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음
-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 고향납세와 크라우드 펀딩을 결합한 방식으로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잘 엿볼 수 있음

Ⅱ. 스미다구 모던스미다사업

○ 스미다의 꿈 응원사업

- 도쿄도 스미다구는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스미다강 옆에 위치한 도쿄의 명소이며, 에도 역사와 관계가 깊은 스미다구는 현재도 에도 문화가 거리 곳곳에 짙게 남아 있음

- 1733년 처음 개최된 스미다강 불꽃놀이는 매년 7월마다 열리는 축제로 자리잡았고, 불꽃 제조 상인들은 도라에몽이나 피카츄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닮은 불꽃, 한자 모양을 한 불꽃 등 복잡하고도 세련된 불꽃을 시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음
- 이외에도 국기관의 스모 대회, 무카이지마(向島)의 화류 문화, 에도의 전통을 잇는 장인의 기술 등이 유명하고, 2012년 스미다구에 도쿄 스카이트리가 건설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고 2016년에는 스미다 호쿠사이(北斎) 미술관을 개관하였음
- 스미다구는 ‘스미다의 꿈 응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에 고향납세를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을 결합하여 기부자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1년에는 5개의 프로젝트가 도전하여 12월 말까지 시행되었음

  ① ‘어린이 미래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 앱 개발 강좌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임

  ② ‘다몬지(多聞寺) 교류 농원’은 체험형 농원으로 2020년 3월에 완공되었는데, 2021년에는 이 농원을 환경・방재・복지 장소로 활용하였고 농원 안에는 휠체어를 타고서도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동형 경작지가 있으며, 아이들에게 반딧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반딧불이 키우기, 도시형 농원을 확장하기 위한 세미나 등도 진행함

  ③ ‘이동식 놀이터’는 다양한 놀이 소재와 도구를 두어 방과 후나 휴일에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프로젝트

  ④ ‘음악의 힘으로 사람과 도시를 건강하게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 공통 언어인 음악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통해 스미다구의 음악 앙상블을 전달하며 쇼핑몰・상가・철도역에서 악

단원이 연주하는 마을 콘서트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음악가인 오자와 세이지의 과거 연주 음원을 아카이브화함

⑤ ‘방재 관광 보자기 프로젝트’는 지역 방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방재 관광 보자기(방재 정보와 관광 명소를 나타낸 그림지도)를 이용하여 방재를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 스미다구의 인구는 27만 명으로 고령자 비율이 낮아서 인구 감소의 우려가 없고 오히려 수도권답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도 견고함

<표 4-2> 스미다구 일반 현황

인구 (명)	작년 대비 인구 (명)	고령자 비율 (%)	아동 비율 (%)	지방교부세율 (%)	과소 상황
275,647	+751	22.1	10.4	-	과소지역 아님
(전국 평균)		(28.2)	(12.1)	(12.2)	

출처) 후루사토 초이스, 2021.1.1. 현황

○ 모던스미다사업

- 스미다구는 구민의 자랑인 예술가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를 기리는 동시에 거리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2016년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을 개관함
- 이 미술관은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 스미다 구립공원 한쪽에 있는데, 가쓰시카 호쿠사이는 우키요에(浮世絵)를 그린 화가로, 우키요에는 에도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풍물을 그린 풍속화이며, 호쿠사이 풍속화는 서양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은 호쿠사이와 그 제자의 작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스미다와 호쿠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시하고 있음

- 호쿠사이 미술관 건설과 고향납세 제도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1988년 스미다구는 ‘호쿠사이관(가칭)’의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1990년대 버블 경기의 붕괴로 인한 경기 하락으로 건설 계획이 중단되었으나, 2006년 도쿄도 스미다구에 세워진 전파탑 도쿄스카이트리의 건설 계획을 계기로 호쿠사이 미술관의 건설 계획이 재검토되었음
- 그런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미술관 건설 계획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속에서 2014년 스미다 구의회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술관 개관 비용으로 약 50억 원의 기부금을 모으기로하여 스미다 호쿠사이 기금이 설치되었고, 스미다구 기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기부금을 모아 미술관 건설을 착공하였음
- 그리고 2015년 4월 고향납세 제도를 이용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2016년 10월 고향납세 기부금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의 모금 목표가 달성되었고, 호쿠사이 미술관은 2016년 11월 개관하였음
- 호쿠사이 미술관 이외에도 스미다구는 스미다강의 불꽃놀이, 국기관의 스모 등 에도 시대의 전통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연중 준비하고 있고, 스미다구에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진 창업 100년 이상이 된 음식 점포도 있고, 스미다강 하구에서 잡은 장어로 만든 에도 장어 요리 등 다양한 전통 일본 식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2013년에는 일본의 식문화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음
- 구에서는 스미다구만의 거리 관광과 문화 시설의 조성에 더하여 스미다 지역브랜드 ‘스미다 모던’을 인증하고 있는데, 스미다 모던이란 스미다구의 산업 브랜드력을 국내외에 광고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한 스미다 지역 브랜드 전략임

- 주요 사업의 하나인 스미다 모던 인증은 스미다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상품이나 음식점 메뉴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약 200건을 인증하였고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스미다 모던 상품을 활용하고 있음

○ 사업 분석

- 스미다구는 도쿄의 다른 구와 달리 고향납세를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에도 전통을 이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스미다구의 가치를 상품화한 스미다구 모던화에 힘쓰고 있고, 구는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사업자의 상품 개발에 일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향후에도 고향납세 기부금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임

[그림 4-1] 스미다구 모던스미다 사업 이미지

Ⅲ. 분쿄구 생활보호자녀 후원사업

○ 일본 교육의 중심 분쿄구

- 분쿄구는 도쿄도의 특별구 중 하나인데, 도쿄대학교와 유명 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으며, 한적한 주택가 사이에는 일본 야구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경기하는 도쿄돔과 고라쿠엔(後楽園)온천이 있는 지역임
- 최근에는 분쿄구를 거점으로 한 출판 시설들이 도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고층 맨션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 고층 맨션에는 학구열이 높은 젊은 세대들이 모여들면서 아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분쿄구의 인구는 22만 1,489명이며 고령자 비율은 19.4%로 전국평균 27.6%보다 낮고 아동 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인데, 수도권이라는 점과 도쿄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2018년 국가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4,070명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지방 교부금을 받지 않을 정도로 재정력이 견고함

<표 4-3> 분쿄구 일반 현황

인구 (명)	**작년 대비 인구** (명)	**고령자 비율** (%)	**아동 비율** (%)	**지방교부세율** (%)	**과소 상황**
226,574	+460	19.2	12.8	-	과소지역 아님
(전국 평균)		(28.2)	(12.1)	(12.2)	

출처) 후루사토 초이스, 2021.1.1. 현황

○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분쿄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이곳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생활 보호자가 있고, 이들 가정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분쿄구는 NPO법인과 협업하여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이용해 고향납세 기부금을 모집하였고, 생활 보호 가정의 자녀에게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하여 생활 보호 가정의 자녀가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물품 지원 프로젝트는 분쿄구와 NPO단체가 함께 개발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분쿄구의 사업 취지를 응원하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 답례품의 제공을 최소화하고 기부금을 최대한 생활보호자 자녀의 지원에 사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향납세 기부금은 고향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실적은 저조하나, 분쿄구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음
- 분쿄구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은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라는 점인데, 구는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여 빈곤층 아동을 위한 '아동 식사 배달 사업'을 시행하여 예상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 이러한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 그리고 기업의 협업으로 가능했는데, 소아 환자의 보육 사업을 수행하는 플로렌스라는 NPO법인이 주체가 돼 분쿄구를 접수창구로 하고 잠재적으로 식사 택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의 커뮤니케이션은 LINE@이 담당했음
-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자금 조달과 아동을 위한 식사 배달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신뢰도가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되면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거나 주민의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로렌스 측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LINE@을 제안했음
- LINE@의 사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아이디어였지만 아동 식사 배달 사업에 대한 문의와 신청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우편·전화 및 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서류로 제출하기보다는 LINE@을 이용하는 방법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리하였고, 실제 아동 식사 배달 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온 것은 LINE@을 도입했기 때문이고 제2차, 제3차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업 분석

- 2019년에는 1,308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2020년에는 1,600명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나, 기부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금액 측면에서는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적음
- 이러한 결과는 2019년까지는 기부자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이 기부할 수 있는 고향납세 기부금을 전액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2020년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기부하는 액수가 적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기부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부 금액은 적어진 것이며 이러한 기부 흐름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림 4-2] 분쿄구 생활보호 자녀 후원사업 이미지

Ⅳ. 가메오카시 지구친환경사업

○ 가메오카 분지의 안개 도시

- 교토(京都)부 가메오카시는 교토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가메오카 분지로 인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아름답고 짙은 안개가 발생하며, 안개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정오가 지나도 개지 않을 때가 있음
-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가 있는 가메오카시는 도시권과 가까우면서도 유노하나(湯の花)온천, 호츠가와쿠다리(保津川下り), 토롯코(トロッコ)

열차 등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많고, 가메오카의 특산품인 맑은 물로 기른 채소와 쌀을 비롯해 쇠고기 브랜드 가메오카규를 사용한 가메오카요리를 즐길 수 있음

- 가메오카시는 인구는 8만 7천 명 정도로 고령자 비율과 아동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이므로 인구의 자연 감소 우려는 적지만, 젊은층의 전출은 계속되고 있어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교부세율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재정 건전성이 높음

<표 4-4> 가메오카시 일반 현황

인구 (명)	**작년 대비 인구** (명)	**고령자 비율** (%)	**아동 비율** (%)	**지방교부세율** (%)	**과소 상황**
87,847	-615	30.2	12.4	15.0	과소지역 아님
(전국 평균)		(28.2)	(12.1)	(12.2)	

출처) 후루사토 초이스. 2021.1.1. 현황

○ 자연을 지키기 위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 최근 가메오카시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향한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시는 지구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선언', '탈탄소 선언'과 <가메오카시 함부로 버리기 금지 조례>나 <가메오카시 플라스틱제 비닐봉지 제공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모델 도시로서 이름을 알리고 있음
- 또한 새롭게 지역 전력 회사인 '가메오카 고향 에너지 주식회사'의 설립, 하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발전 사업화 등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가메오카시는 지구 친화적인 환경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 도시로서 가메오카시를 알리기 위해 JR가메오카역 부근에 있는 교류 장소를 정비하였음

- 그리고 가메오카시의 3대 관광지 중 하나인 호즈카와쿠다리의 야경을 다시 밝히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0여 년 전 재해 피해로 인해 오랫동안 야경을 밝히지 못했으나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야경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은 환경 도시로서의 인지도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지역 축구팀이 승격됨에 따라 축구 관전자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자 광고지 배포, 조명 축제 등의 이벤트 개최, 인생 최고 장면 장소의 설치 등으로 사람이 더 많이 찾는 장소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처럼 가메오카시는 조명 점등의 이벤트 등을 통해 더욱 매력적인 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환경 도시 가메오카를 널리 알리고 있음

○ 사업 분석

- ‘자연을 지키기 위한 플라스틱 제로!’ 프로젝트는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으로 목표 금액 대비 119% 모집을 달성함. 기부자 1,628명이 약 3억6천만 원을 기부하여 원래 목표 금액이었던 약 3억 원을 초과
- 모집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는 현재도 ‘가메오카시 안개 예술제’를 테마로 하여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하고 있음
- 가메오카시는 2015년부터 고향납세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가메오카시의 맛있는 물과 자연을 이용한 양질의 답례품 제공이 성공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고향납세의 성과에 힘입어 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 후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그림 4-3] 가메오카시 지구 친환경 도시 만들기 이미지

Ⅴ.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

○ 히로시마(広島)현 진세키코겐정

- 히로시마(広島)현 진세키코겐정은 미야지마(宮島)와 평화공원에서 약 100킬로미터 동쪽에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11℃이고 해발 고도가 매우 높으면서도 지대가 평탄한 고원 지역
- 고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만들어 내는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 때문에 진세키코겐정에서 생산되는 쌀과 야채에서는 깊은 맛이 남. 벼 모내기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매일 이러한 기온 차이를 겪기 때문에 쌀 한 톨마다 맛과 영양이 충분히 응축되어 있음
- 진세키코겐정의 인구는 8,691명이며, 고령자 비율이 47.9%로 매우 높고 아동 비율이 8.1%로 낮아 향후에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이

미 과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아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을에 학교를 설치할 경우 그 학교법인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까지도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지방교부세율은 35.3%로 전국 평균 12.2%보다 상당히 높으나, 2019년 지방교부세율이 43.8%로 당시 전국 평균 11.8%에 비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2021년은 2019년보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4-5> 진세키코겐정 일반 현황

인구 (명)	**작년 대비 인구** (명)	**고령자 비율** (%)	**아동 비율** (%)	**지방교부세율** (%)	**과소 상황**
8,691	-213	47.9	8.1	35.3	과소지역
(전국 평균)		(28.2)	(12.1)	(12.2)	

출처) 후루사토 초이스, 2021.1.1. 현황

○ 진세키코겐정의 하울링

- 진세키코겐정은 2021년 동물 보호 비영리단체인 「피스완코재팬(Peace Wanko Japan) ‘완코(わんこ)’는 ‘멍멍이’라는 뜻」과 함께 개 살처분 금지 사업으로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함
- 일본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돌볼 수 없게 되어 버려진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이 병이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비용으로 살처분해 왔는데, 1999년에는 전국적으로 애완동물 약 4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2019년에도 버려진 애완동물 약 8만 5천 마리 중에서 3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음
- 한편, 피스완코재팬은 히로시마현 동물 보호소에서 살처분되는 유기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히로시마현이 살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아픈 개를 돌보고 있음

- 2013년 진세키코겐정에 터를 잡고 '유기견 살처분 제로' 프로젝트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히로시마현은 유기견 살처분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를 돌보는 데에는 사육비, 광견병 예방 접종비, 개집 수리비, 수의사와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필요한데, 피스완코재팬 회원이 내는 회비만으로는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진세키코겐정과 함께 유기견 보호를 위해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기로 결정

❍ 사업 분석

- 진세키코겐정의 개 살처분 금지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됨. 동물 보호 비용 약 52억 원을 목표로 정한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은 17,203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기부 받아 목표액의 94%를 달성함
- 진세키코겐정은 2019년에도 애완동물 살처분 금지 프로젝트에 도전. 당시의 목표 금액은 약 5천만 원으로, 22,800명의 고향납세자로부터 약 5천3백만 원을 기부 받았음
- 애완동물 살처분 금지 프로젝트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선보임
- 진세키코겐정의 고향납세 실적은 2014년부터 늘어나 2020년에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음. 기부자의 공감을 일으키기 쉬운 애완동물 살처분 프로젝트가 고향납세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진세키코겐정의 인지도까지도 높이고 있음

[그림 4-4]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 이미지

Ⅵ.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

○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산골 마을

- 야마가타현 가네야마정은 19세기 말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일본 오지 기행』이라는 책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산골 마을'로 소개되어 있음
- 마을의 4분의 3이 산림으로 뒤덮여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한 마을이며, 현재는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거리 풍경 만들기 100년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가네야마정의 2021년 인구는 5,264명으로, 2020년에 비해 142명이 감소. 평균 인구감소율이 13%로 가네야마정이 속해 있는 야마가타현에서도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

-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의 축소, 산업 쇠퇴, 전통과 문화 계승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곧 힘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와 닿음. 가네야마정은 인구 감소 상황을 직시하고, 향후 100년 뒤에도 가네야마정을 존속시키기 위해 사람과 마을을 잇는 관계인구 증가를 위해 ‘가네야마의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4-6> 가네야마정 일반 현황

인구 (명)	**작년 대비 인구** (명)	**고령자 비율** (%)	**아동 비율** (%)	**지방교부세율** (%)	**과소 상황**
5,264	-142	36.6	10.3	43.0	과소지역
(전국 평균)		(28.2)	(12.1)	(12.2)	

출처) 후루사토 초이스. 2021.1.1. 현황

❍ 100년을 다짐하는 로맨틱한 작은 마을의 움직임

- 가네야마정은 2021년 “포기하지 않는다! 100년 후에도 빛나는 가네야마정을 남기기 위한 작은 마을의 도전! 사람과 마을을 잇는 시간디자인스쿨을 개교합니다” 로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을 추진
- 가네야마정의 유지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여 온 이주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관계인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인과의 관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가네야마의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은 가네야마라는 마을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가네야마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나 가네야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가네야마 배움 교실
-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으로 확보한 기부금은 시간디자인스쿨 사업, 이주 정책 사업 그리고 창업가 육성 사업에 사용

❍ 사업 분석

- 가네야마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의 기부금 모집 기간은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91일간. 목표 금액은 1천만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기부 받은 금액은 약 1천 2백만 원으로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
-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은 가네야마정과 주식회사 소 토코토 플래닛이 함께 만든 사업. 시간디자인스쿨의 사업 취지는 마을 주민과 지역 밖의 사람들이 모두 가네야마의 미래를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는 대화 공간을 만드는 것
- 사업 참가의 예상 연령대는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20대에서 40대이었으나, 실제 사업에 참석한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로 16명이 참가
- 그리고 원래는 현장 체험과 온라인을 같이 진행하는 방식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만 강의 등을 진행. 제1회 온라인 수업은 동사무소 담당자와 지역 관계자가 강사가 되어 가네야마정을 설명하는 시간. 제2회 온라인 수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지역 생산품을 설명하는 시간
- 수업 종료 후에 가네야마산 고구마와 생땅콩을 참가자에게 송부한 뒤에 온라인 요리 교실을 열어 참가자를 지원
- 제3회 온라인 수업은 참가자가 향후 가네야마와 맺고 싶은 관계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꾸밈. 가네야마정의 시간디자인스쿨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은 기부금 재원의 획득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 마을 외부인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참가자 중에는 등교를 거부한 자녀가 가네야마정에서 승마 체험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후기를 보내준 사람도 있었고, 생활 요양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소개가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보내준 사람도 있음

- 가네야마정 고향납세 실적에서도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가네야마정 고향납세액은 2015년까지 조금씩 상승했으나, 답례품을 기부금의 30%로 제한한 지정 제도가 신설된 이후에는 가네야마정에서 생산되는 고가 답례품을 송부하기 곤란하여 기부금 실적은 급격하게 낮아짐
- 이러한 상황은 가네야마정의 시간디자인스쿨 사업의 실시와 관련 고향납세 크라우드 펀딩의 실시 등으로 2021년 이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음

[그림 4-5]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 이미지

제5장 대덕구 맞춤형 고향사랑 기부사업 방안

Ⅰ.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 사업

○ 대덕구는 대청호를 둘러싼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관광벨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사업 발전방안 제시

- 기존 시설 활용 및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 ‘대덕구’를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함

○ 대청호 부근 명소에 대한바둑협회를 유치하여 전국 바둑 애호가가 방문하고 싶은 핫 플레이스 조성

- 전국 유일의 다목적 ‘바둑 전용 경기장’을 마련하여 전국 유수 바둑 대회와 일본 및 중국 등이 참여하는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바둑 애호가가 바둑을 두기 위해 방문하고 관광하는 컨텐츠로 육성

○ 대한바둑협회는 협약식 체결을 위한 이벤트로 기부금 조성과 온라인 바둑 상품권 등 답례품 제시 준비 중

- 협약식 체결 언론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바둑 애호가에게 대덕구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 예정
- 대덕구는 협약식 체결을 위해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추진 계획 제시 준비 필요
- (예)한국타이어 공장 부지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공장 부지를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그림 5-1] 바둑관광 프로젝트 이미지

대한바둑협회와 대덕구청 협약체결(안)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바둑경기장 시설, 관중석, 관리업무 시설 등
- 관련근거: 바둑진흥법 제8조(바둑단체의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2. 업무협약 체결

-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사)대한바둑협회 간 협약 체결로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사업 추진
- 경기장 건립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에 관한 내용 포함

3. 경기장 활용방안

(주중) 바둑지도자가 상주해 바둑 강습 개최

- 성인 및 어르신 대상, 학생 대상

(주말) 바둑대회 정기 개최

- 지역 내 승•단급 심사 개최, 권역 및 전국 규모 바둑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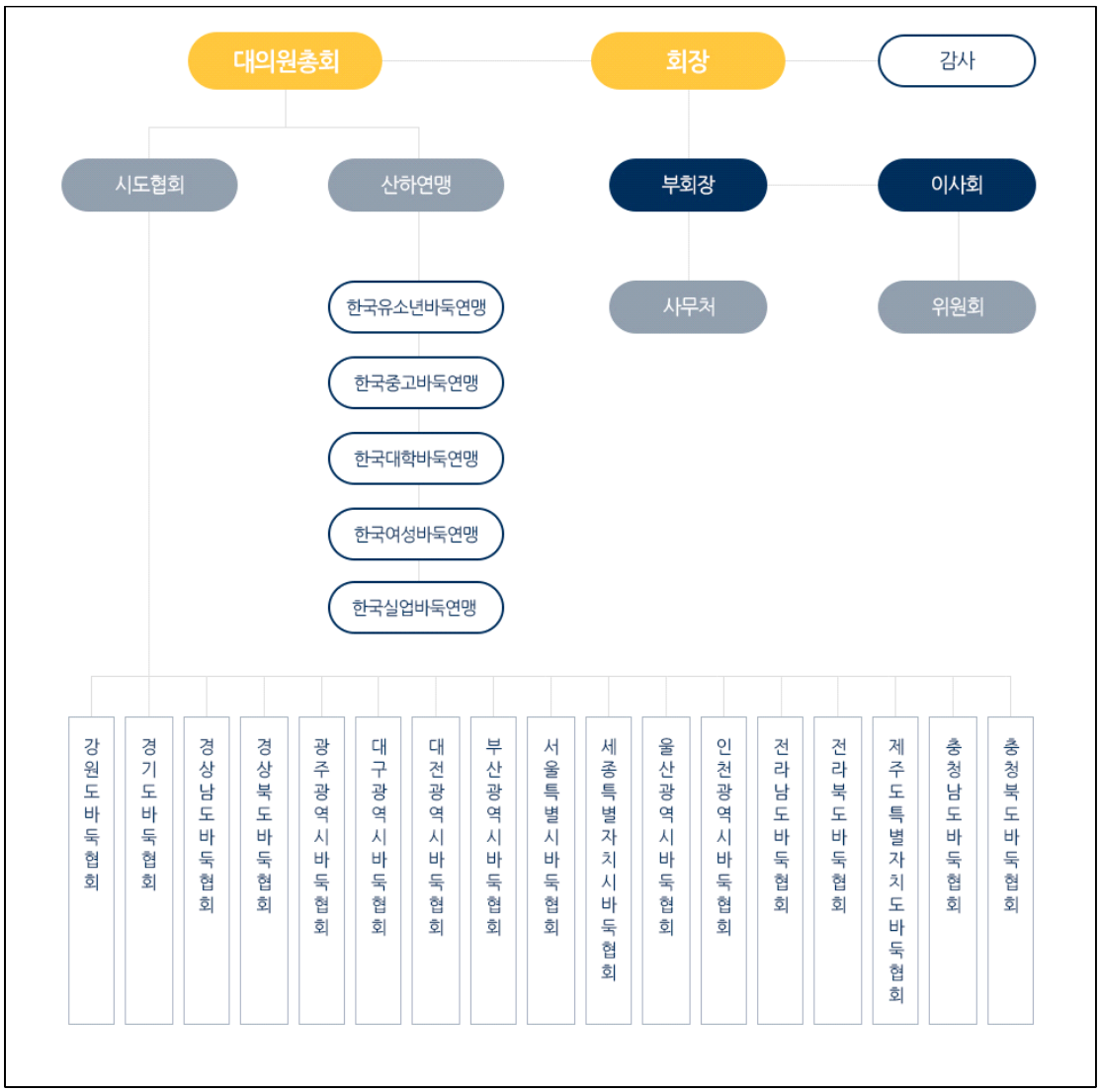
4. 기대효과

- 정기 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 강습 등으로 바둑 애호가 및 가족 등 유동인구 유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 바둑은 ㈔대한바둑협회가 2001년부터 진행해왔던 바둑의 스포츠화 노력으로 2009년 대한체육회의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되면서 스포츠로 전환되는 계기 마련

- 2008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세계마인드스포츠대회(International Mind Sports Games)에 바둑 종목이 참가하게 되었고, 지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바둑에 걸린 금메달 3개를 모두 획득하면서 다시 한 번 바둑 최강국임을 입증함
- 최근 인간의 심신 활동을 조절하는 두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둑을 비롯한 마인드 스포츠는 새로운 스포츠로 부상

[그림 5-2] (사) 대한바둑협회(조직도)



자료) (사)대한바둑협회 홈페이지, 2021

○ 우리나라는 바둑 진흥을 위한 「바둑진흥법」('18. 4.17 제정, '18. 10.18. 시행)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바둑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바둑 진흥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바둑진흥법 제5조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바둑의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바둑은 단순 스포츠의 역할을 넘어 유소년 학습 능력향상, 고령자 여가를 통한 질환 예방 등의 순기능이 입증되었음

- 특히 AI와 결합한 비즈니스모델이 제시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산업으로 주목되고 있어 미래 세대인 유소년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바둑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AI(인공지능),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함께 문화산업 측면에서 출판, 교육, 방송, 게임, 용품, 기획전시 등에서 산업적 발전을 꾀하고 있음

○ 국내 바둑 인력은 전문기사, 선수, 지도자, 심판, 아마단자, 아마급자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에 소속

- 2020년 기준 총 165,124명으로 전문기사 377명, 선수 882명, 지도자 1,021명, 심판 616명, 아마 단·급자 145,864명, 동호인 21,572명임

<표 5-1> 바둑 인력 현황

구분	전문기사	선수	지도자		심판	아마단자	아마급자	동호인	합계
			바둑지도사	바둑코치					
인원수	377명	882명	909명	112명	616명	49,017명	96,847명	21,572명 (492개클럽)	170,332명
			2급(68)	2급(112)	기원(102)				
			3급(841)	-	협회(514) 2급: 106 3급: 408	43,601명 (기원) 5,416명 (협회)	24,699명 (기원) 72,148 (협회)		
소속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대한바둑협회	

<표 5-2> 아마단자 현황

구분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합계
1단～8단	43,601명	5,416명	49,017명

* 단급제도에 있어서 '단'은 프로와 아마추어에 적용되고, '급'은 아마추어에게만 적용

〈표 5-3〉 아마급자 현황

구분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합계
30급～1급	24,699명	72,148명	96,847명

출처) 한국기원 및 대한바둑협회 자료(2020)

○ 대한바둑협회 주관 아마추어 바둑대회 현황

- 2019년 기준 아마추어 바둑대회는 국내 약 35개, 국제 4개로 약 30,000명 참여
- 참가자격에 따라 전국·지역·세계대회, 학생·어린이·여성·장애인대회 등으로 구분되며,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등 총 39개 대회 개최
- 또한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등이 국내·외에서 개최

○ 바둑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상품의 소재로 삼고 있음

- 문화산업은 하나의 문화상품이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김미라, 2012)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국가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이를 보호하고 문화상품화 하기 위해 노력

- 바둑은 수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 속에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
- 국제바둑연맹(IGF)에는 총 77개국이 가맹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 4,200만 명 이상이 바둑을 마인드스포츠, 놀이문화, 오락문화로 즐기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국제바둑연맹, 2021)
- 인공지능(AI),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활용, 출판, 교육, 방송, 게임, 용품, 기획전시 등 문화산업 분야로 확대 중

<표 5-4> 바둑문화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분류의 정의
출판산업	서적 출판업	잡지, 학습서적,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을 출판하는 사업체
	학습서적 출판업	바둑교재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서적 출판을 하는 사업체
교육산업	바둑교육 운영업	바둑 교육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체
	인터넷 바둑교육 서비스업	기획 및 제작된 바둑교육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바둑교육용품 유통업	바둑교육용품을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체
기전산업	기전기획 및 제작업	바둑기전을 기획하고 제작, 운영하는 사업체
방송산업	바둑 방송물 기획 및 제작업	바둑 방송물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게임산업	인터넷 바둑사이트 운영업	바둑게임과 관련 정보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바둑게임 제작업	바둑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체
바둑용품산업	바둑용구 제작업	바둑용구를 기획,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체

출처) 김미라, 「문화경영분석에 입각한 한국 바둑문화산업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2012)

○ 답례품

- 바둑과 관련된 바둑판, 바둑알 등 답례품 개발
- 바둑 전용 경기장과 관련된 입장권, 유명 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상품권, 사이버 바둑 회원권, 바둑 기보 등 바둑 경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품 개발

○ 홍보방안

- 대덕구가 바둑의 메카가 되어 각종 바둑 방송과 일간지 바둑 기사 코너에 소개. 관련 컨텐츠 계속 개발이 필요
- 대한바둑협회가 중심이 되어 바둑애호가에게 대덕구가 바둑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현황을 적극 홍보함
- 대한바둑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바둑 애호가 동호인이 대덕구에 관심을 갖고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대한바둑협회 부회장 심층인터뷰

(질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답변) 잘 알고 있다.
(질문) 대덕구가 바둑 전용경기장 추진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답변) 그동안은 수도권만 생각했는데, 대덕구가 적극적으로 바둑 전용경기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질문) 우리나라에 바둑 전용경기장이 있는가?
(답변) 아직 없다.
(질문) 바둑 경기가 많이 개최되는가?

(답변) 전국적으로 한 달에 20여개의 경기가 열리고 경기가 열리면 경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천 명, 학부모 등 관계자까지 합하면 한 경기당 3천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다.

(질문) 바둑 전용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답변) 바둑은 다른 스포츠와 달리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다. 바둑 경기가 없을 때는 다른 체육 종목이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질문) 바둑 애호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바둑 전용경기장은 바둑 애호가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이다.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질문) 대한바둑협회 등 바둑 유관단체나 기업에서 적극 환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나 ?

(답변) 당연히 그렇다. 바둑 애호가가 바라는 사업이다.

(질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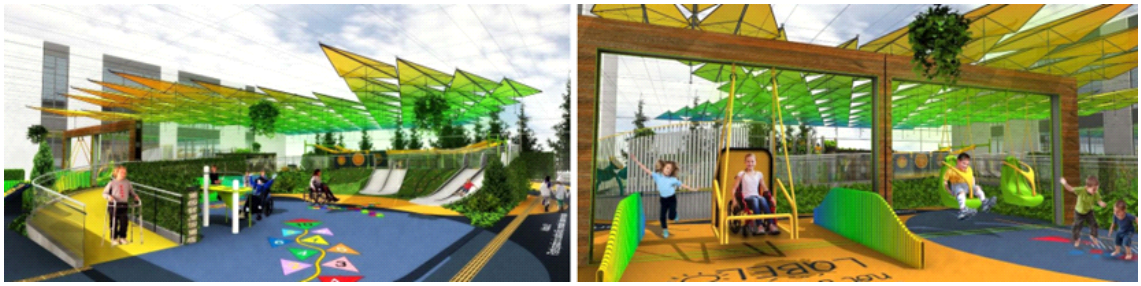
(답변) 기부금으로 모은 돈을 바둑 종목을 위해 사용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것이고, 우리 협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 대덕구 인근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확산

- '대덕아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육아문제에 관심을 갖는 부모에게 대덕구에 기부하는 동기 유발
- 송촌생활체육공원을 활용하여 '무장애 놀이터', '땀범벅 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검토 필요

[그림 5-3] 어린이 무장애 놀이터 이미지



무장애 놀이터란?
누구나 함께 차별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장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어울리며 놀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곳.

[그림 5-4]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이미지

❍ 아름다운재단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답변) 잘 알고 있다.

(질문) 아름다운재단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 사실 아름다운재단은 이미 오랫동안 고향사랑 지정 기부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이다. 아름다운재단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비영리단체가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온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와 민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무장애 놀이터 건립은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답변) 모든 어린이를 위한 무장애 놀이터 건립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장애와 비장애, 너와 나의 다름을 차이로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5-5] 경계선 아동 지능개선 프로젝트 이미지

-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

현 장 답 사 결 과 보 고

1 답사 개요

○ (목　　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발굴된 기금사업 및 답례품** 등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각 사업의 **실효성과 연계 가능성 검토**

○ (일　　시) 2023. 8. 28.(월) 15:00~18:00　* 중간보고회(당일 13:30)에 이어서 진행

○ (장　　소) **이현동 오색빛 호박마을 등 총 3개소**

○ (참 석 자) **총12명**

- (고향사랑연구회/4) 김기흥 회장, 박효서 의원, 이준규 의원, 조대웅 의원
  (의 회/6) 행정복지·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
  (용역사/2) 책임연구원 등

2 답사 주요내용

❶ 대청호 로하스가족공원

현 황	▸ **(위 치)** 대청호 424번길 200 일원(미호동) ▸ **(구 성)** 방문자센터(1동), 풋살장(2면), 화장실(1동), 주차장 등
검 토	▸ **(검토사항)** 기금사업인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가능 여부 파악 ▸ **(검토결과)** 도심과 먼 거리에 위치해 낮은 접근성으로, 경기장 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시민 이용 편이를 위해 **접근성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요

② 이현동 오색빛 호박마을

현 황

▸ **(위 치)** 대청호수로1 326번길 75(이현동)

▸ **(구 성)** 구판장, 이현동석불, 습지공원, 연꽃습지, 여수바위, 초가랑 마을밥상, 음식연구원, 과수농장, 서예농원, 하늘강 아뜰리에 등

▸ **(운 영) 2018년부터 공정관광 프로그램 운영 (연2~3천명 방문)**

※ 더맑은이현마을 협동조합(2020년 ~ 현재)

- 마을상품 : 향토 음식 및 건강차, 감돌고기 캐릭터 상품

(먹거리) 호박을 활용한 유과, 강정, 고추장, 된장, 찐빵 / 무 덖음차, 메리골드 꽃차 등

(기념품) 감돌고기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 도자기(풍경, 접시, 컵 등)

- 마을체험 : 예술·자연·향토음식 관련 체험 상품

호박·감돌고기 풍경 및 향토 음식만들기, 건강밥상 체험, 마을 숲이야기 등

검 토

▸ **(검토사항) 마을 관광체험 및 전통 식품의 답례품 연계 가능성**

▸ **(검토결과)**

- 예술·자연·향토음식 콘텐츠로 구성된 이현동 **마을 관광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관광 수요가 사전 검증**되었음

* 2022년 제1회 대한민국공정관광 전국대상 수상(주민사업체)
* 매년 관광객 2~3천명 방문

➜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린 **체험형·특화형 답례품**으로 연계 가능

❸ 송촌생활체육공원 일원

현 황

▸(위 치) 송촌동 61-2(송촌동)

▸(구 성) 총면적 103,757㎡

조경시설	목교, 파고라 등	편익시설	화장실, 음수대, 주차장, 푸드트럭 등
휴양시설	의자, 평상, 앉음벽 등	관리시설	안내판, 창고 등
유희시설	어린이놀이터 4개소	도시농업시설	텃밭 2,426㎡
운동시설	게이트볼장,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34		

▸(조 성) 공사비 총15,130백만원

- 제1, 2차 총6년에 걸쳐 공원 조성(2009년 ~ 2014년)

검 토

▸(검토사항) 기금사업으로 테마길 조성 및 숲 체험 등

▸(검토결과)

➜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으로 **구간별 '테마'를 설정**하여, **코스 개발 및 활용이 가능**

《 적용(안) 》

* (명 칭) **배우「송중기 길」**

: 지역 연관 유명 연예인(배우 송중기)이름을 활용한 **공원 인지도 향상 전략**

* (구 성) ①누구나 함께 **무장애 황톳길** ②숲 가꾸기 **그린짐(Green Gym)**
③**포토존** ④**특화 놀이터** (아이들 땀범벅·반려동물 등)
⑤**송중기 체육센터** → 송촌스포렉스 매입·리모델링(바둑경기장 건립 등)

3 반영 계획 [구 → 용역사 요청]

○ 현장 답사를 통한 **「기금사업」*** 및 **「답례품」 관련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를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하도록 요청**

* 바둑 전용 경기장, 테마가 있는 공원(가칭, 송중기 길) 조성

○ **「기금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한 사항 확인**

- 추진 방향, 추진 내용, 소요예산(안) 제시 등

※ 지정기부 관련 제도적 검토 포함

○ **「답례품」** 관련 **체험 코스 및 상품으로 연계 방안과 전략적 홍보 방안**

- 기존 운영 중인 체험 코스 및 상품 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별도 상품 개발 및 코스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

※ (예시) 내고향 싱싱 꾸러미(계절농산물 활용) 등

【붙 임】 보도자료 1부. 끝.

【붙 임】 보도자료

충청일보

HOME > 포토뉴스 > 충청포토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 현장답사

이한영 기자 | 승인 2023.08.29 18:19

대전시 대덕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회장 김기홍)가 지난 28일 오후 대덕구 이현동 오색빛 호박마을 등에서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대전=이한영기자

배우 송중기 길 조성 기금사업 검토

❍ 유사 사례 연구(소지섭 길)

- 소지섭길은 강원도 DMZ일대를 배경으로 2010년 출간된 소지섭의 포토에세이집 '소지섭의 길'이 발단되었으며,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양구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에 반한 소지섭이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가장 좋아하는 숫자 51을 소지섭길의 총거리로 확정함
- 2010년 9월 3일 소지섭 강원관광홍보대사 위촉
- 강원도(환경관광문화국 DMZ 관광청)는 2011년 6월 3일(금) 51K(소지섭 소속사)에서 주최하고 강원도·양구군에서 주관하는 '소지섭 팬클럽 초청 '소지섭 길' 사전 걷기행사'를 실시함. 이번 행사는 일본·국내팬 300여명을 '소지섭 길'에 초청하여 일부 구간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팬들은 양구 두타연 입구에 조성된 '소지섭 갤러리' 관람을 시작으로 이목교~두타소에 이르는 4km 산책로를 탐방, 첫 발자취를 남겼다.

❍ 소지섭의 길

- 2010년 8월 배우 소지섭이 철원, 양구, 고성, 화천 등 DMZ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느낀 감성을 담은 포토에세이집

❍ 펜클럽과 연계가 핵심

- 배우 ‘송중기 길’이 대표성을 갖고 지역을 대표하는 볼거리로써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우 송중기 본인 및 가족 또는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펜클럽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큼
- 펜클럽은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구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송중기 길’을 찾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조직임
- 그러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펜클럽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펜클럽이 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송중기 길’을 만들어서 대덕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킨다면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임

Ⅲ. 친환경 모델도시 만들기

○ 지구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선언’, ‘탈탄소 선언’ 등을 통해 친환경 모델 도시로써 명성을 얻는 노력 필요함

- 지구 친화적인 환경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조례 내용을 강화하고, 환경 도시로서 대덕구를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한킴벌리와 함께 탄소저감운동

- 유한킴벌리는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제품에서 매출의 95% 이상을 달성한다는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원료, 공급, 유통, 소비, 자원순환까지 포함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기업, 기관 등과의 협업을 확장해 오고 있으며, 바이사이클은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의 하나로 폐핸드타월 등 자원순환에 집중한 프로젝트
- 핸드타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료사용저감과 재활용성 증대를 통한 공동의 탄소저감 노력 수행 선언
- 핸드타월 재활용을 시작으로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대덕구 산하 관공서 및 공공기관, 대덕구 입주 기업 전반으로 확산

[그림 5-6] 해피클린 캠페인 이미지

○ 답례품

- 탄소저감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관내 입주 기업인 유한킴벌리와 함께 탄소저감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 필요
- 예를 들어, 핸드타월을 재활용한 덕구와 더기더기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또는 보드 게임 만들기
- 재활용 퇴비를 활용하여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 농작물 재배 후 버려지는 폐배지를 재활용해 친환경퇴비로 활용

[그림 5-7] 스마트팜 이미지

○ 홍보방안

- 유한킴벌리 및 지역 내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대덕구 산하 관공서 및 공공기관, 대덕구 입주 기업 전반으로 탄소저감 운동 확산하여 환경 리더 이미지 구축
- 특히 수도권 기부자들이 관심이 많은 환경 이슈를 선점하여 기부 실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할 필요

○ 서울대학교 환경전문 교수 심층인터뷰

(질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답변) 네. 특히, 환경문제와 연계한 일본 고향납세 기금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선언이나 탈탄소 선언을 한다면 기부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수도권 기부자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역 환경사업을 추진하면 기부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지역의 환경단체나 기업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가?

(답변) 우리나라는 능력 있는 지역환경단체가 많다. 공평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 특히, 탄소저감 크레딧, 자원순환 및 재활용 문제에 관심 많은 지역기업과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Ⅳ. 반려동물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 응원 받을 수 있는 의미있는 소재

- 대덕구는 2019년 대전시 최초로 신탄진 휴게소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소함. 추가적으로 애완견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뜻 나서지 않는 '유기견 돌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 있음

○ 대형동물병원 등을 유치하고, 유기견을 돌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반려동물의 장례식장 등을 설립해서 기존의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하여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유기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의 애완견 애호가에게 대덕구에 기부하는 동기 유발하며, “의미있고, 보람있는 " 기부를 통해 유기견을 함께 보살피고, 주말에는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와 유기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

[그림 5-8] 반려견 댕댕이와 함께 프로젝트 이미지

○ 답례품

- 유기견과 1:1 매칭을 통한 유기견 양육 상품권 개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사업 모델)

- 아픈 유기견 치료를 위한 1:1 매칭 후원 상품권 개발
- 유기견 관련 스토리를 만들어 웹툰과 애니메이션 제작. 연관 캐릭터 상품 제작

○ 홍보방안
- 동물애호단체와 함께 유기견 양육 및 치료 1:1 매칭 상품을 홍보하여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관심이 있는 기부자 후원을 이끌어 냄
- 동물애호단체와 협업해 애완동물 보호 운동 전개하고, 유기견의 중성화 수술, 치료 사업 등 추진으로 대덕구 이미지 홍보

○ 동물보호단체 정책팀장 심층인터뷰

(질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답변) 동물보호사업과 관련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그렇다. 중성화 수술, 치료, 안락사 방지 등 지역에서 동물보호 활동을 한다면 동참하고 싶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운동을 하면 응원할 의사가 있는가?
(답변) 구체적인 응원활동은 의논해 봐야 하겠지만 당연히 응원할 의사가 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해서 그러한 활동을 한다면 기부금 모금을 응원할 의사가 있는가?

(답변) 그렇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사업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Ⅴ. 드론과 함께 하는 체류관광

○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되어 있음. 드론산업은 핵심 선도사업으로 항공·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임. 최대 유망 시장산업으로 사업용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저가·소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에서 농업·감시·측량·배송 등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화 중으로, 향후 대형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의 자율비행 드론 상용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에서의 드론의 이용

- 공중 촬영, 건축이나 토목 측량, 건설현장 점검, 농약 살포, 경비 보안, 드론 강사, 드론 엔지니어 등 여러 사업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음.
- 공중 촬영이란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역동적

이고도 박진감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음. 드론 이용 공중 촬영은 TV나 CM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맨션 등의 광고에서도 사용되고 있음.

- 건축이나 토목 측량 업무에도 드론이 사용되고 있음. 단시간에 드론으로 측량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함. 다만, 드론 측량에는 공중 촬영과 소프트웨어 해석, 3D 모델링까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건설 현장의 점검 업무에도 드론이 활용되고 있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검사해 작업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 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도 드론을 사용하면 점검이 가능함. 예를 들어 드론으로 지하철 내를 점검할 수 있음.
- 농약 살포의 효율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이 보급되고 있음.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보다 드론을 이용하면 사전에 비행 경로를 프로그래밍하여 자동 비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다만, 루트대로 농약을 살포하려면 고도의 조종 기술이 필요함.
- 경비나 보안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음. 드론으로 순회하게 하는 것으로, 자동 조종에 의한 경비는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음.
- 드론 강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드론 조종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드론을 가르치는 곳이 급증하고 있음. 드론 강사는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앱 사용 능력 그리고 수강생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함.
- 드론 엔지니어는 개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용도에 맞는

기능을 갖춘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함. 드론은 최근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엔지니어가 적은 반면에 판매 시장이 확장되고 있어서 유력한 사업임.

○ 드론 애호가가 대덕구를 방문해 자신의 공간에서 드론 비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사업화(드론 공원 활용)

- 대덕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8조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대덕구는 대청호를 둘러싼 산과 물이 조화한 관광벨트를 통해 체류형 관광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해 ‘대덕구’를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함

[그림 5-9] 드론으로 촬영한 대청호 이미지

❍ 답례품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2-3만원대 '소형드론' 답례품
- 드론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체험권(Flight Pass),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답례품으로 제공
- 드론 교육 상품, 드론 비행장 입장권, 드론 영상 편집 상품권 등 답례품 개발 필요

[그림 5-10] 레크레이션용 드론 예시

❍ 홍보방안

- 대덕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사전에 관광장소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일으킴
- 드론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드론 애호가가 대덕구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대덕구를 알리는 홍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Ⅵ. 대덕구 캐릭터 활용사업

[그림 5-11] 대덕구 캐릭터 덕구와 더기더기

○ 덕구와 더기더기를 연계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대덕구를 홍보하고 답례품을 개발

- ‘반려동물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기금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 대덕구를 알리는 대표적 캐릭터를 스토리와 함께 만들어 재미있는 마을,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 캐릭터를 웹툰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젊은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지자체 캐릭터의 ‘대변신’

지방자치단체 캐릭터들이 설레게 함. 과거 지자체를 상징하는 캐릭터 하면 그 지역 특산품에 눈코입을 단 남녀 한 쌍으로 의인화한 모습이 대부분이었음. 그런 그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감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음. 왜 변모하고 있을까?

공공 캐릭터들의 ‘발랄한’ 변화는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접근하려는 시도임. SNS 홍보가 필수인 시대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면 전달 매개체가 있어야 했으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디자인의 캐릭터가 그 중심에 서게 됨.

인기 캐릭터는 인간적인 요소와 유머감각이 특징적임. 캐릭터가 마치 친한 친구처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을 건네는 모습은 대중과 연결고리를 형성함

○ 답례품

- 덕구와 더기더기를 연계한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을 제작하고,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인형 등 답례품으로 상품 개발 가능

○ 홍보방안

- 덕구와 더기더기를 연계한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을 제작하

여 대덕구를 알리는 대표적인 스토리로 만들어낼 필요 있음

-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재미있고 창의적인 스토리 발굴 필요

○ ㈜크레몽 대표 심층인터뷰

(질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답변) 잘 알고 있다.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스토리를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다. 요즘은 유튜브 등 홍보수단이 다양해져서 스토리가 재미있다면 지역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질문) 이렇게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하고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 기부자에게 알리고 캐릭터 사업까지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

(답변) 구체적인 예산은 이야기의 성격이나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7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캐릭터의 지속적 활용과 관리 중요

지자체 캐릭터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지역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속적 활용과 라이센스 관리가 필수적임.

캐릭터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면 경제적 효과 창출은 물론 캐릭터가 지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애향심과 자부심 고취에 도움을 줌.

SNS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지역 캐릭터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관광, 문화, 산업을 고취시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역캐릭터가 지역 브랜드로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Ⅶ. 지역사업체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

○ 대덕구 내 기업과 협력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컨텐츠 개발 및 수익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물 문화관은 수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체험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체험학습 문화공간임.
- 대청댐 물 문화관은 대청댐의 역할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으며, 대청호와 금강에 사는 생물 서식 환경을 살펴볼 수 있음. 또한 대청댐을 지을 때 없어진 마을의 문화도 기록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음악회 같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림 5-12] 대청댐 물문화관 이미지

[그림 5-13] 대청댐 물문화관 주변 인프라 이미지

○ 대덕구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인접한 청주시와 보은군 그리고 인근의 공주시, 논산시, 옥천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에 건설된 수자원공사의 금강문화관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를 꿈꾸는 공간임.
- 금강문화관은 금강과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백제의 역사, 문화, 생태, 관광을 주제로 한 감성체험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그림 5-14] 부여 금강문화관 이미지

❍ 답례품

- 지역 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관광상품권 개발, 특히 수자원공사는 대청호 인근에 있으므로 대청댐 문화관 등 보유 시설을 활용한 상품 개발 가능
- 대덕구와 인접하거나 주변의 유명 관광도시와 연계한 관광상품권 개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시너지 효과

❍ 홍보방안

- 지역사업체와 공동으로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아이디어 개발하여, 대덕구도 알리고 기업도 홍보할 수 있는 상호 발전 방안 마련
- 그동안 관광객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대청호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주변 관광도시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제6장 대덕형 답례품 개발과 맞춤형 홍보방안

Ⅰ. 대덕형 답례품 개발

○ 대덕형 답례품 개발

- 답례품을 개발할 경우의 주의점: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상품이면서, 기부자 선택의 중요사항인 답례품의 가격을 가능한 3만원이나 6만원으로 책정해 기부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기부자의 기호에 맞춘 상품 개발이 필요함

- 대덕형 답례품으로 The맑은이현마을 협동조합에서 만든 호박찐빵과

1. The맑은이현마을 협동조합의 '호박찐빵'

○ The맑은이현마을 협동조합에서 만든 '호박찐빵'은 오색빛 호박마을 지역특성화사업 프로젝트로 진행됨

- 'THE맑은이현마을'이라는 특색있는 컨텐츠가 담고 있어서 인기 답례품으로 개발 가능

대덕구 THE맑은이현마을

높고 깊은 계족산 계곡 사이로 울창한 숲을 끼고 마을 내륙의 바다라 일컫는 대청호가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대청댐의 건설로 자연생태순화를 겪으며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농촌다움이 있는 THE맑은이현마을은 오랜 터전을 일부 수몰로 잃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더 맑고 아름다운 터전이 되었음.

이끼도룡뇽, 수달, 반딧불 등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대청호의 청정함 속에 살아있고 특히 고유어종인 금강유역에만 서식했던 감돌고기가 이제 대전의 하천에서만 서식하게 됨.

THE맑은이현마을 사람들은 대전의 깃대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감돌고기의 서식지를 살려내기 위한 환경생태캠페인과 함께하는 청정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임.

지역주민이 여행을 안내하는 더맑은이현마을 여행은 날마다 자연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음.

“특별한 감성을 제공하는 예술가, 요리연구가, 제빵사, 착한농부들“

차돌이네농장에서는 마을과수원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음.

참좋은우리음식연구소는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쑥을 가지고 직접 전통 쑥떡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음.

하늘강아뜰리에는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도예작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음

[그림 6-1] 대덕구 THE맑은이현마을 호박찐빵 이미지

2. 호박강정세트

○ The맑은이현마을 협동조합에서 만든 '호박강정세트'

- 6종한과+호박강정낱개20개+호두2개로 구성되어 있음. 'THE맑은이현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싱싱한 호박을 가지고 직접 강정을 만들고 있음을 홍보함

[그림 6-2] 대덕구 더맑은이현마을협동조합 ‘호박강정세트’

3. 감돌고기 풍경체험권

○ 하늘강 아뜰리에 감돌고기 풍경체험권

-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이현동 생태관광 함께 공방에서 추억을 쌓는 체험권
- 하늘강 아뜰리에에서는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도예작가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음

[그림 6-3] 더맑은이현마을 생태관광과 공방 추억 이미지

4. 대청호 복숭아

○ 대덕구 내 유일한 복숭아 작목반인 ‘대청호복숭아작목반’에서 생산한 대청호 복숭아

-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상품

“농산물 우수관리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 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음.

우수관리인증의 대상 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되는 농산물임.

[그림 6-4] GAP 인증받은 대청호 복숭아

5. 광야식품 웰빙 음료

○ 광야식품은 대덕구 내에 위치한 웰빙음료와 웰빙식품의 제조 전문 기업으로 30년 이상의 영업노하우를 갖춘 기업임

광야식품은 30여 년간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최고의 맛과 몸에 좋은 웰빙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초건강음료의 다양화와 건강선식, 건강차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2013년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이온그룹 협력 회사로 선정되어 일본 전역에서 한국 식초 건강음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성의 국제 규격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통해 원료에서부터 제품생산은 물론 유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품질과 철저한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키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품질관리와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음

[그림 6-5] 30년 역사와 전통의 대덕구 광야식품 음료

Ⅱ. 기부자 맞춤형 홍보방안

○ 가장 효과적인 기부자 맞춤형 홍보는 독창적인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연령대별로 광고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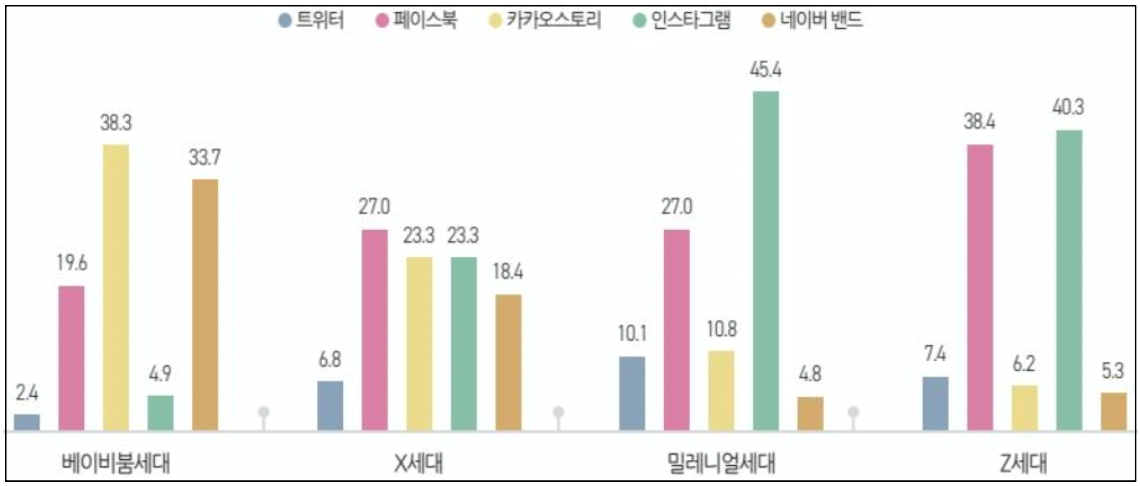
- 독창적인 컨텐츠 개발은 기부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대덕구 기금사업에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연령대별로 이용하는 SNS가 다른 점을 활용하여 홍보함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2년 연령대별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도를 조사하여 발표함

- 우리나라 밀레니얼세대(25~38세)의 83.5%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윗세대는 물론 아래 세대인 Z세대(9~24세)보다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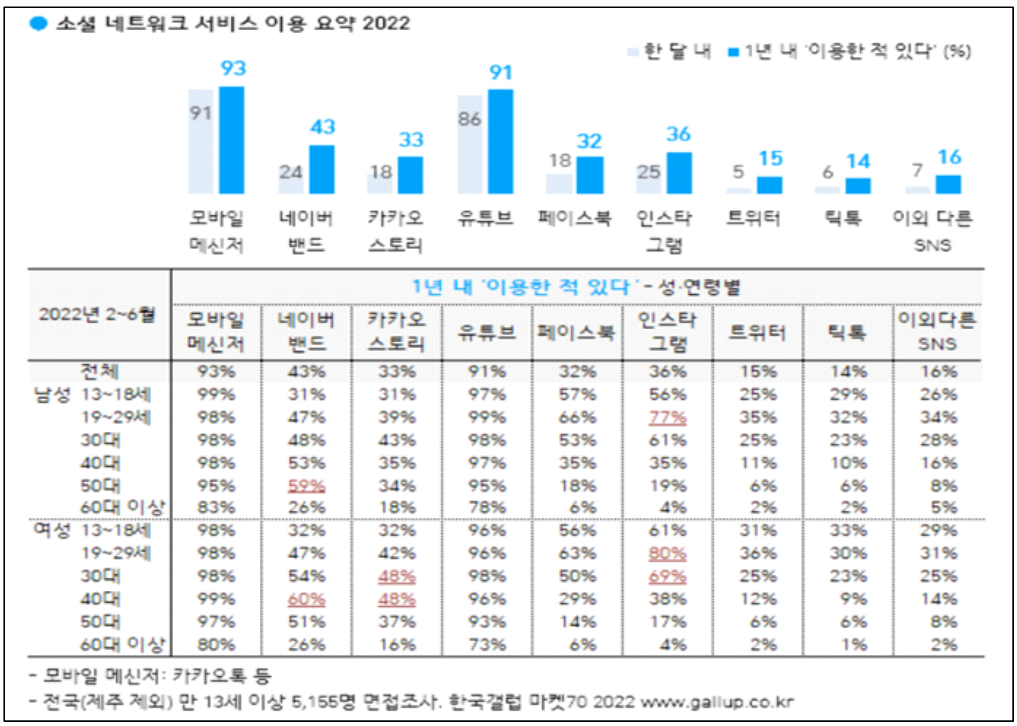
- SNS 이용자 가운데 2시간 이상 이용하는 '헤비 유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Z세대임.
- 밀레니얼세대는 인스타그램(45.4%) 하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에 X세대(39~54세)는 페이스북(27.0%), 카카오스토리(23.3%), 인스타그램(23.3%), 네이버 밴드(18.4%) 등 다양한 계정을 고르게 활용하는 등 세대별 성향 차이가 있음

[그림 6-6] 연령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조사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표 6-1> 한국갤럽 202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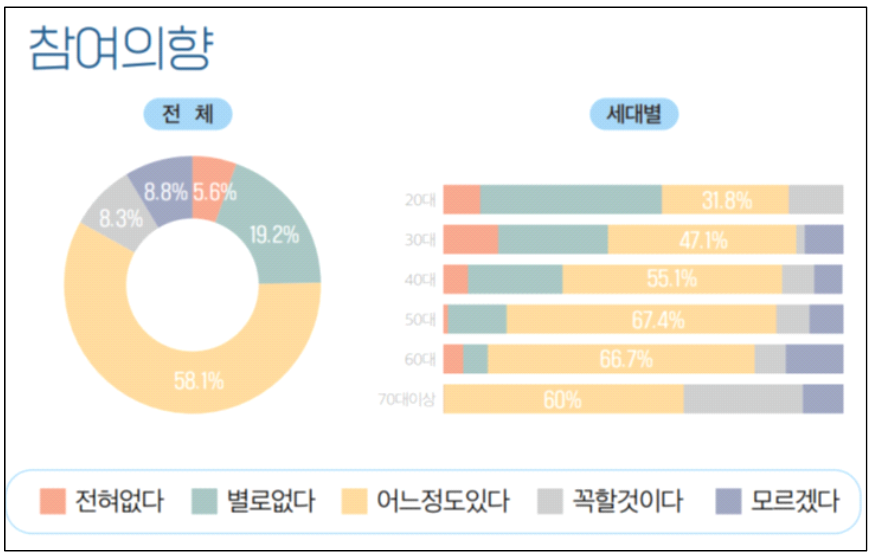
2022년 2~6월	1년 내 '이용한 적 있다' - 성·연령별								
	모바일 메신저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트위터	틱톡	이외다른 SNS
전체	93%	43%	33%	91%	32%	36%	15%	14%	16%
남성 13~18세	99%	31%	31%	97%	57%	56%	25%	29%	26%
19~29세	98%	47%	39%	99%	66%	77%	35%	32%	34%
30대	98%	48%	43%	98%	53%	61%	25%	23%	28%
40대	98%	53%	35%	97%	35%	35%	11%	10%	16%
50대	95%	59%	34%	95%	18%	19%	6%	6%	8%
60대 이상	83%	26%	18%	78%	6%	4%	2%	2%	5%
여성 13~18세	98%	32%	32%	96%	56%	61%	31%	33%	29%
19~29세	98%	47%	42%	96%	63%	80%	36%	30%	31%
30대	98%	54%	48%	98%	50%	69%	25%	23%	25%
40대	99%	60%	48%	96%	29%	38%	12%	9%	14%
50대	97%	51%	37%	93%	14%	17%	6%	6%	8%
60대 이상	80%	26%	16%	73%	6%	4%	2%	1%	2%

-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
-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5,155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마켓70 2022 www.gallup.co.kr

○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연령대는 30대~50대로 추정됨

- 60대와 70대는 참여 의향은 크지만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적다는 문제가 있음
- 여성은 상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함
- 유튜브와 모바일메신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음
- 30대 여성은 인스타그램, 40대 여성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50대 여성은 유튜브를 중심. 30대 남성은 인스타그램, 40대 남성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50대 남성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 있음

[그림 6-7] 2022년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의향 조사



제7장 결론

○ 대덕구에 특화된 고향사랑 기부사업의 전략 수립을 위해 대덕구의 지역 및 경제 환경 등의 분석, 대덕구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국내 고향사랑 기금 사례 및 일본의 고향납세 기금사업 사례의 분석, 대덕구의 특색을 반영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발굴 그리고 이와 연계한 홍보방안을 검토함

○ 대덕구의 지역 및 경제 환경 등의 특색

-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계족산과 대청호가 있는 청정 자연환경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경부·호남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회덕분기점(JC)과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IC)가 있는 교통의 분기점이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임
- 옛 회덕현의 주요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회덕향교·동춘당·계족산성을 비롯한 무수한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음
- 2000년도까지는 인구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둔산 및 도안신도시 개발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인구 유출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대덕구와 유사 여건을 갖춘 국내 고향사랑 기금 사례 검토

- 남해군 체류형 관광 프로젝트, 청주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사슴공원 조성, 부산 기장군 프랜차이즈 창업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시흥시·안산시 '똑똑해지는 이중 언어' 교육센터 건립, 무안군 갯벌 지키기 프로젝트를 검토함
- 고향사랑 기부제에서의 기부는 애정을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응원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함.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0명에 대한 진천군의 수용 결정에 대해 전국에서는 진천군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돈쭐내자'(돈+혼쭐내자)는 말까지 유행하며, 'Buy 진천'(진천을 사자) 열풍으로 진천군이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진천몰'(jcmall.net)에 주문이 폭주됨. 진천군 사례에서 기부자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기부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부한 재원이 제대로 사용되어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될 때 보람을 느껴 다시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됨

○ 일본 고향납세 기금사업 사례 검토

- 스미다구 모던스미다사업, 분쿄구 생활보호자녀 후원사업, 가메오카시 지구친환경사업,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을 살펴봄
- 도쿄의 여러 구 중에서 다소 발달이 뒤쳐진 스미다구는 장기 발전 계획하에 모던스미다사업을 시행하였고, 스미다구 구민의 자랑인 예술가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를 기리는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 개관은 그 중심적인 존재 가치를 함유하고 있음. 스미다구는 이 미술관의 건설을 고향납세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기부를 받아서 건설함. 미술관 개관사업의 성공은 스미다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에 고향납세 기금사업을 연계하도록 영향을 미침

- 분쿄구도 도쿄의 한 구로, 구에서 실시한 생활보호자녀 후원사업은 일반 민간단체와 연계한 사업으로 구에 대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 사업이 실시된 계기가 됨. 가메오카시 지구친환경사업은 교토의 클린 정책과 연계되어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진세키코겐정 동물보호사업은 사람과 동물의 상생에 대한 좋은 모범사례가 됨. 마지막으로 가네야마정 시간디자인스쿨사업은 작은 시골마을에서 일으킨 커다란 관계인구 증가사업으로 고향납세 제도가 갖는 저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됨

○ 대덕구 특색을 반영한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발굴과 이와 연계한 홍보방안

- 대덕구 고향사랑 연구회와 함께 2번의 간담회, 3번의 보고회, 현장답사 그리고 고향사랑의날 기념식 참석을 통해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 친환경 모델도시 만들기, 반려동물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 드론과 함께 하는 체류관광, 대덕구 캐릭터 활용사업, 지역사업체와 협력하여 관광객 유치를 대덕형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발굴함

- 특히,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핵심은 대덕구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인 대덕구 응원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임. 가장 응원세력을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목적 바둑 전용경기장 유치가 가장 큰 반응을 일으킴. 바둑은 수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임. 또한 유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 고령자의 여가생활 수단으로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AI와 결합하여 신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 지도상 중심에 위치하며, 예로부터 문화의 도시인 대덕구의 명소인 대청호 인근에 전국 유일의 다목적 바둑전용경기장이 유치된다면 전국 바둑애호가가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답례품으로 바둑과 관련된 바둑판, 바둑알 등을 개발할 수 있고, 바둑전용경기장과 관련된 입장권, 유명 기사와 대국할 수 있는 상품권, 사이버 바둑 회원권, 바둑 기보 등 바둑경기 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함
- 대덕구가 바둑의 메카가 되어 각종 바둑 방송과 일간지 바둑기사 코너에 소개될 수 있고 대덕구의 바둑사업의 이미지를 높이며, 또한 고향사랑 기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컨텐츠의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함

[참고 문헌]

[법령 등]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법
- 국가재정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태백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地方自治法
- 補助金等の交付により造成した基金等に関する基準
-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施行令
- 泰阜村ふるさと思いやり基金条例
- 遠野市, “遠野市ふるさと未来投資支援事業費補助金（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型ふるさと納税事業）”, 2022.
- 総務省, “ふるさと納税 總務省 告示 179號”, 2019.
- 総務省 “ふるさと納税に係る返礼品の送付等について”, 総税市 第28号, 2017.
- 総務省, “人口減少社会に的確に対応する地方行政体制及びガバナンスのあり方に関する答申”, 地方制度調査会, 2016.
- 総務大臣地方自治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等の施行について（通知）総行行第232号, 2011.
- 総務省, “ふるさと納税 会議資料·報告書等”, ふるさと納税研究会, 2007.

[단행본 및 논문 등]

- 신승근·조경희, 『가슴 뛰는 기부 혁명』, 나남출판사, 2023.
- 신승근·조경희,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2022.
- 保田隆明, 『地域経営のための「新」ファイナンス: 「ふるさと納税」と「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インパクト』, 中央経済社, 2021.

· 田中輝美, 『関係人口の社会学 : 人口減少時代の地域再生』, 大阪大学出版会, 2021.
· 増田寛也 編, 『地方消滅 : 東京一極集中が招く人口急減』 , 中央公論新社, 2015.
· 최천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내용 및 시사점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Vol.1 제22호, 2023.
· 국승용, 김창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2.
· 김광용,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제62호, 2022.
· 김동영,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전북의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2022.
· 심미경, 김원신, 이준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D-300, 주요 쟁점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광주전남연구원, 2022.
· 신승근, 조경희,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세무사회 稅務士 제40권제3호, 2022.
· 전성만, 유보람,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 염명배,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한국경제통상학회 經濟硏究 제39권제4호, 2021.
· 주현정,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제주연구원, 2022.
· 유학열,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2021.
· 윤영근, 탁현우, “주민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본 복수주소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소고”,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 32 no 1, 2021.
· 한국소비자원,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21.
· 이구형,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88호, 2020.
· 육동한, 박상헌, “날개를 단 일본의 고향세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 향방”, 강원연구원, 2018.

· 이상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발전 24권 9호, 2018.
· 류영아, 이상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방안: 입법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 김철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경남의 대응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18.
· 国土交通省, “国土交通白書 2021 コラム “第1節 危機による変化と課題への対応 - I’m home! Tokamachi“ 十日町市への移住者が多い理由とは-？”, 国土交通白書, 2021.
· 田中駿行, “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に向けた新たな立法措置―新過疎法の成立過程と国会論議―”, 参議院 立法と調査 No 435, 2021.
· 北武司, “ふるさと納税返礼品の最新人気ランキング 1位は南あわじ市のブランド新玉ねぎ”, 女性セブン5月12・19日, 2021.
· 総務省, “新たな社会経済情勢に即応するための地方財務会計制度に関する研究会 資料２ 公金取扱いにおける私人委託制度の運用の例”, 2021.
<https://www.tkc.jp/consolidate/tkc_express/2021/10/202110_00758/>
· 大橋知佳, “地方創生と「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新たな可能性”, 日経研月報, 2019.
· 大橋知佳, “地方創生と「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新たな可能性(山形市鍋つぐっぺ)”, 日本経済研究所, 2019. <https://www.jeri.or.jp/center/pdf/center_2019_02_01.pdf>
· 総務省, ”2018年度「関係人口創出事業」モデル事業 調査報告書“, 2019.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17803.pdf>
· 総務省, “これからの移住・交流施策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 報告書”, 2018.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29409.pdf>
· 文京区, “『こども宅食』プロジェクトにご協力ください °ˇ子どもたちに笑顔を届けようˇ”
<https://www.city.bunkyo.lg.jp/kyoiku/kosodate/takushoku.html>
· 黒沼孝文, “ふるさと納税制度の活用を考える～本来のふるさと納税がもつべき性質とこれからのめざすべき方向性と活用方法とは～(金山町)”, 地域活性化センター, 2021.

<https://www.jcrd.jp/seminar/078b49d7c78f6318eaccfc47bd74c10683afdd43.pdf>
· いちき串木野市, “市来農芸高校　プロジェクト始動”　いちき串木野市 広報 Vol 140, 2017.
<https://www.city.ichikikushikino.lg.jp/seisaku3/shise/koho/koho/documents/20170620kouho.pdf>
· 東川町, “ひがしかわ株主制度”
<https://higashikawa-town.jp/kabunushi/about>
· 南あわじ市, “淡路島たまねぎ”
<https://www.city.minamiawaji.hyogo.jp/soshiki/shoku/tamanegi.html>
· 南あわじ市, “ふるさと南あわじ応援券”
<https://www.awajishima-kanko.jp/news/files/1198.pdf>